
정책참고자료

2018-1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 가을 수확기 안전수칙 준수로 농기계 사고 예방하세요!** _____ 4
-주간(10.28.~11.3.) 안전사고 예보-

2 국민권익위원회

- 강원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상담** _____ 10
- 17일 강릉, 18일 양구, 19일 철원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3 중소벤처기업부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12개 신규 개소** _____ 12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간
1천명의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

4 교육부

- 시·도 부교육감회의, 유치원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_____ 17
- 교육청별 감사결과('13~'17) 시정여부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중심 종합감사 완료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_____ 22
- 4차산업 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채용 지원, 청년 구직자를 위
한 인공지능(AI) 자소서 컨설팅 등 실사-

6 문화체육관광부

- 비무장지대, 문화예술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_____ 28
- 10. 27.~28. 문체부와 경기도,
'비무장지대 탈바꿈 평화한마당' 공동 개최 -

7 농림축산식품부

- 마음이 넉넉해지는 체험 여행
'11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_____ 32

8 환경부

제주·순천·창녕·인제,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

- 두바이에서 10월 25일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총회에서 제주, 순천, 창녕, 인제 등 4곳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 -

40

9 고용노동부

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 사업주가 보호조치 불이행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45

10 여성가족부

‘보호관찰 청소년’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

49

11 국토교통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 24일 주거복지협의체 개최...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절차 쉬워진다 -

54

12 해양수산부

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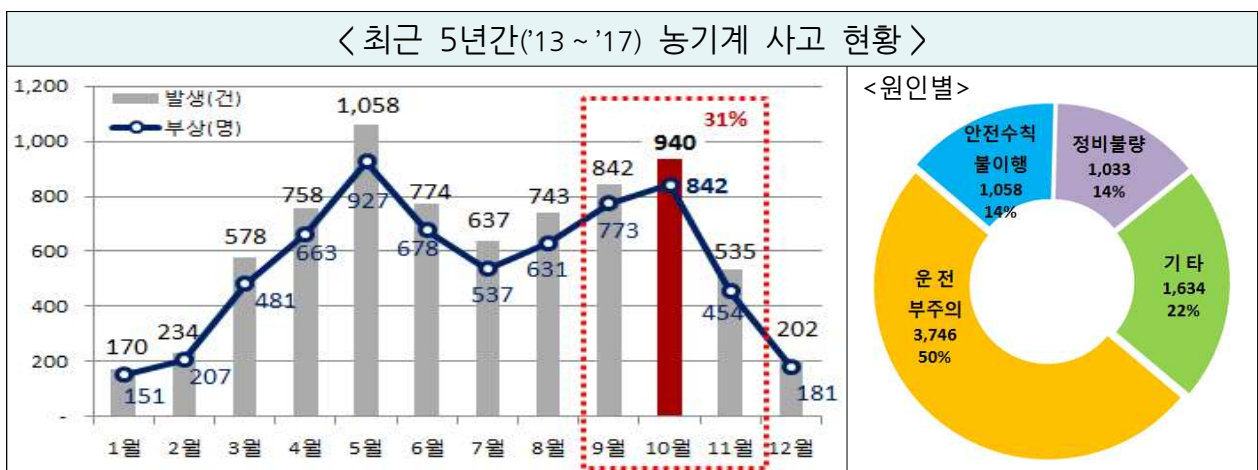
- 해수부, 올해 12월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59

가을 수확기 안전수칙 준수로 농기계 사고 예방하세요

- 주간(10.28.~11.3.) 안전사고 예보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농기계 안전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이며, 7,066명의 인명피해가(사망 541명, 부상 6,525명) 발생하였다.
- 특히, 연간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3건 중 1건(2,317건, 31%)이 가을 수확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10월에는 940건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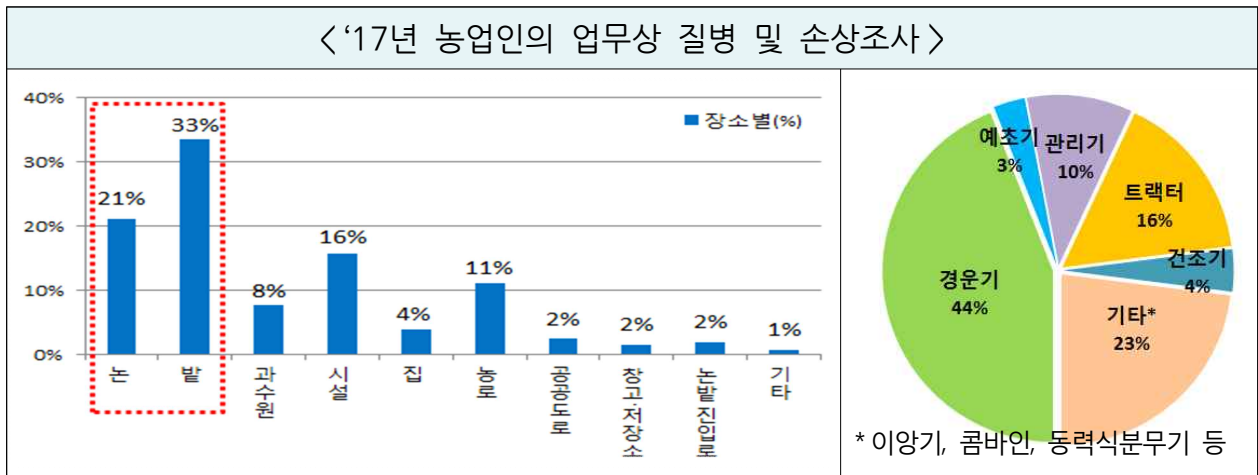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가 절반(3,746건, 50%)으로 가장 많았고, 과적이나 농기계 동승 등 안전수칙 불이행이 1,058건(14%), 정비 불량인 1,033건(14%) 발생하였다.
- 또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17년)」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중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트랙터와 관리기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농업인에게 발생한 사고와 질병, 손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농촌진흥청)

- 사고발생 장소는 논과 밭이 51%로 가장 많았고, 하우스 등 시설 16%, 농로나 공공도로, 논밭진입로 등에서도 15%나 발생하였다.



[출처: 통계청(kosis.kr)]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하고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농기계로 좁은 농로나 내리막길, 급커브길을 운행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이동한다.
 -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야간 시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뒤쪽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 장치를 꼭 붙이도록 한다.
 - 또한, 농기계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 하고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제 때 교체하도록 한다.
 - 작업복은 농기계 벨트 등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소매나 바지가 길게 늘어지는 옷은 피하고 신발은 가급적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안전화가 좋다.

- 아울러, 농기계에 짐을 실을 때는 화물 적재함의 규격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때 운전석에서는 사방이 모두 보여야 한다.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해 농사를 갈무리 하는 바쁜 시기이지만,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새참 등으로 음주를 했다면 충분히 휴식한 후 작업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참 고 1

최근 5년('13~'17년)간 농기계사고 현황

연도별

구 분	발생(건)	인명피해(명)		
		소 계	사 망	부 상
합 계	7,471	7,066	541	6,525
2017년	1,459	1,396	105	1,291
2016년	1,460	1,411	114	1,297
2015년	1,519	1,341	100	1241
2014년	1,486	1,369	87	1282
2013년	1,547	1,549	135	1414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월 별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7,471	170	234	578	758	1,058	774	637	743	842	940	535	202
2017년	1,459	40	47	114	173	203	149	111	119	179	186	100	38
2016년	1,460	37	43	119	151	195	162	132	165	148	152	114	42
2015년	1,519	32	51	158	151	209	136	115	138	189	197	109	34
2014년	1,486	37	60	91	150	234	159	151	148	137	175	100	44
2013년	1,547	24	33	96	133	217	168	128	173	189	230	112	44

원인별

구 분	합 계	운전부주의	안전수칙불이행	정비불량	기 타
합 계	7,471	3,746	1,058	1,033	1,634
2017년	1,459	977	37	426	19
2016년	1,460	910	28	497	25
2015년	1,519	602	267	19	631
2014년	1,486	655	366	47	418
2013년	1,547	602	360	44	541

참고 2 농기계 사고 사례 및 예방요령



절단기에 바지가 말려 들어가 다리 베임

사고내용

- 절단기를 이용하여, 고추 지지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중, 절단기 전원 차단 후의 잔여 회전에 의해 바지가 말려 들어가면서 다리가 베임



사고과정

- 50대 후반 남성 농업인, 3월 오전 9시경
- 고추 밭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고추 지지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수행함
- 하나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단기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절단기에 바지가 말려 들어감
(절단기의 스위치를 꺼도 원심력으로 인해 회전이 오랫동안 지속됨, 작업자는 절단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바지단이 정리되지 않았음)
- 다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다리가 베이는 재해가 발생함
(비상정지 스위치 자체가 없는 제품이었음)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경운기 : 경사진 커브길 운행 중 전복

사고내용

- 경운기에 짐을 싣고 귀가하던 중, 농로 바닥이 패인 커브길에서 클러치레버를 잡는 순간 경운기 손잡이가 급회전되면서, 경운기 손잡이가 가슴을 타격하여 갈비뼈가 골절됨



사고과정

- 70대 초반 남성 농업인, 9월 오후 3시경
- 경운기에 뽕나무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약간의 커브길에서 조향 클러치를 잡았음
- 방향 전환을 위해 조향 클러치를 잡는 순간, 농로의 패인 부분을 바퀴가 지나가면서 경운기 손잡이의 급회전이 발생됨 (빗물의 흐름으로 인해 여러 개의 물길에 생겨 바닥이 고르지 못하였음)
- 경운기 손잡이가 가슴을 타격하면서 갈비뼈가 골절됨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교통사고

경운기 : 사거리 신호대기 중 뒷차량이 추돌

사고내용

- 비가 내리는 어두운 날 마을 저수지 관리자가 경운기를 몰고 저수지로 가던 길에,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중에 뒤에서 오던 자동차가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튕겨져 바닥에 떨어짐



사고과정

- 70대 초반 남성 농업인, 9월 오후 6시경
- 비가 많이 내려 마을의 저수지 관리를 담당하는 재해자가 저수지 물 관리를 위해 경운기를 몰고 저수지로 이동 함 (시야확보가 어려운 어두운 상황이었음)
- 이동 중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기다리던 중, 뒤에서 오던 자동차 운전수가 미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재해자가 경운기에서 튕겨져 바닥에 떨어짐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전복

경운기 : 음주 운전으로 전복

사고내용

- 밭에서 작업하다가 음주를 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커브길에서 커브를 꺾지 못해 경운기와 함께 전복·추락하여 쇠골부위에 타박상을 입음



사고과정

- 50대 후반 남성 농업인, 5월 오전 11시경
- 밭에서 작업하면서 음주를 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음
커브길에서 제대로 커브를 꺾지 못했으며, 브레이크를 잡으려 했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경운기가 멈추지 않음
- 농로 밖 1m아래로 경운기와 함께 전복·추락되면서 경운기에 쇠골부위를 부딪혀 타박상을 입음 (농로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강원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
- 17일 강릉, 18일 양구, 19일 철원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강릉시청, 18일 양구군청, 19일 철원군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 강원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관	강릉시	양구군	철원군
일시	10.17.(수) 10:00 ~ 16:00	10.18.(목) 10:00 ~ 16:00	10.19.(금) 10:00 ~ 16:00
장소	시청 2층 대회의실	양구문예회관 1층 제1세미나실	군청 4층 대회의실
(참여)	양양, 동해	인제, 화천	-

※ 금년 9월까지 57개 지역을 방문하여 1,551건 민원 상담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강원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12개 신규 개소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간 1천명의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2개 광역 권역에 신설하고, 기존 5개 권역에서 전국 17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존(5개) : 경기(안산), 광주, 충남(천안), 경북(경산), 경남(창원)

** 신규(12개) : 서울, 경기북부(파주), 인천, 강원(원주), 대전세종(대전), 충북(청주), 전북(전주), 전남(나주), 부산, 대구, 울산, 제주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시제품제작,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이번에 개소하는 12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이 창업자 양성을 주도하고 중진공이 창업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 민간운영기관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업교육과 제품개발 코칭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등을 전담하여 청년들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 이날 개최된 개소식에서는 청년창업자들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및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성공을 응원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 최수규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신설되는 12개 청년창업사관 학교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 학교는 청년창업가 1,978명 양성, 매출액 1조 5,397억원, 일자리 창출 4,648명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간편송금 서비스 ‘TOSS’를 개발한 (주)비바리퍼블리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직방을 비롯하여, 의사출신으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한 (주)힐세리온 등이 있다.

※ 행사 현장 사진은 10.24(수) 12시까지 배포 예정

- [붙임] 1.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운영기관 현황 및 개소식 일정
2.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개요
3.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성과

참 고 1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운영기관 현황 및 개소식 일정

□ 신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12개)

구분	지역	소재지	민간 운영기관	개소식 일정	창업자 양성인원
1	서울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	(사)한국능률협회	10.24.(수)	150
2	경기 북부	MH타워 (파주시 금촌동)	(주)오픈놀	11.15.(목)	30
3	인천	미추홀타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주)엠디글로벌넷 (주)통코칭	11.15.(목)	40
4	강원	원주벤처공장 (원주시 문막읍)	(주)세움넷	11.21.(수)	30
5	대전 세종	KT대덕2 연구센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주)아이빌트세종	11.07.(수)	40
6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아이빌트세종	11.07.(수)	30
7	전북	우석빌딩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유)로우파트너스	10.25.(목)	30
8	전남	예가람타워 (나주시 빛가람동)	(주)엘스톤	10.25.(목)	30
9	부산	부산벤처타워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재)제주이주지원센터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요즈마그룹코리아	11.13.(화)	40
10	대구	계명대 대명캠퍼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비아이지글로벌	11.13.(화)	40
11	울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울산시 남구 삼산동)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1.09.(금)	30
12	제주	제주벤처마루 (제주시 이도2동)	(사)타이드인스티튜트	11.22.(목)	1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제조업 위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 수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사업화
→ (창업성장)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등 후속연계지원

□ 사업내용

- (창업준비) 창업저변확대 및 창업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술창업 스카우터)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자 발굴
 - (프리스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전 창업역량 강화
 - * (기본과정)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기초교육
 - * (심화과정) 창업자간 창업역량 격차 해소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입교전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실행)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등
 -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단, 기술경력보유자는 49세 이하)
 -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이내, 연간 최대 1억원(2년간 최대 2억원)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시제품 제작 등 창업사업화 지원)
- (창업성장)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지원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 미만(창업 7년 미만)
 - * 지원내용 : 성장촉진프로그램 운영(중진공 지원사업 및 대외 기관 연계)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등 후속 연계 지원)

참 고 3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성과

□ 청년CEO 양성 규모

- 2011년 개교이래 1,978명의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

(단위 : 명)

구 분	선발	퇴교	졸업	비고
2011년도 1기	241	△29	212	졸업 (' 12.2)
2012년도 2기	229	△16	213	졸업 (' 13.2)
2013년도 3기	301	△47	254	졸업 (' 14.2)
2014년도 4기	307	△23	284	졸업 (' 15.3)
2015년도 5기	278	△26	252	졸업 (' 16.2)
2016년도 6기	324	△24	300	졸업 (' 17.2)
2017년도 7기	500	△27	463*	졸업 (' 18.2)

* 18년 8기는 973명의 청년창업자가 입소하여 사업화 진행중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성과

- 원스톱 패키지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18. 5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창업자(A)	창업유지(B)	창업유지율(C=B/A)
1기(7년차)	212	119	56.1
2기(6년차)	213	147	69.0
3기(5년차)	254	170	66.9
4기(4년차)	284	243	85.6
5기(3년차)	252	224	88.9
6기(2년차)	300	289	96.3
7기(1년차)	463	461	99.6
합계	1,978	1,653	83.6

- 졸업이후 누적 매출액 15,397억원, 고용창출 4,648명 등 성과 시현

(' 18. 5월말 기준)

구 분	1기(11년)	2기(12년)	3기(13년)	4기(14년)	5기(15년)	6기(16년)	7기(17년)	합계
졸업CEO(명)	212	213	254	284	252	300	463	1,978
매출액(억원)*	2,975	4,693	2,343	3,123	955	733	575	15,397
고용인원(명)*	423	591	495	858	519	636	1,126	4,648
지재권(건)	314	677	778	1074	609	568	621	4,641

* (매출액) '17년말 누적매출액, (고용인원) '18년 5월말 기준 고용

시·도 부교육감회의, 유치원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 교육청별 감사결과('13~'17) 시정여부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종합컨설팅 지원 강화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10.18(목)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밝히며,
-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에, 금일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 시·도교육청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 11.1,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시 감안

-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 6개 교육청(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홈페이지)

△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

【유치원 감사 원칙 정립】

-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 체제를 운영하되,
-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18.10.15~’19.1.14, 3개월간) 운영과 연계하여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

-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한다.
- 기 감사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영역(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추가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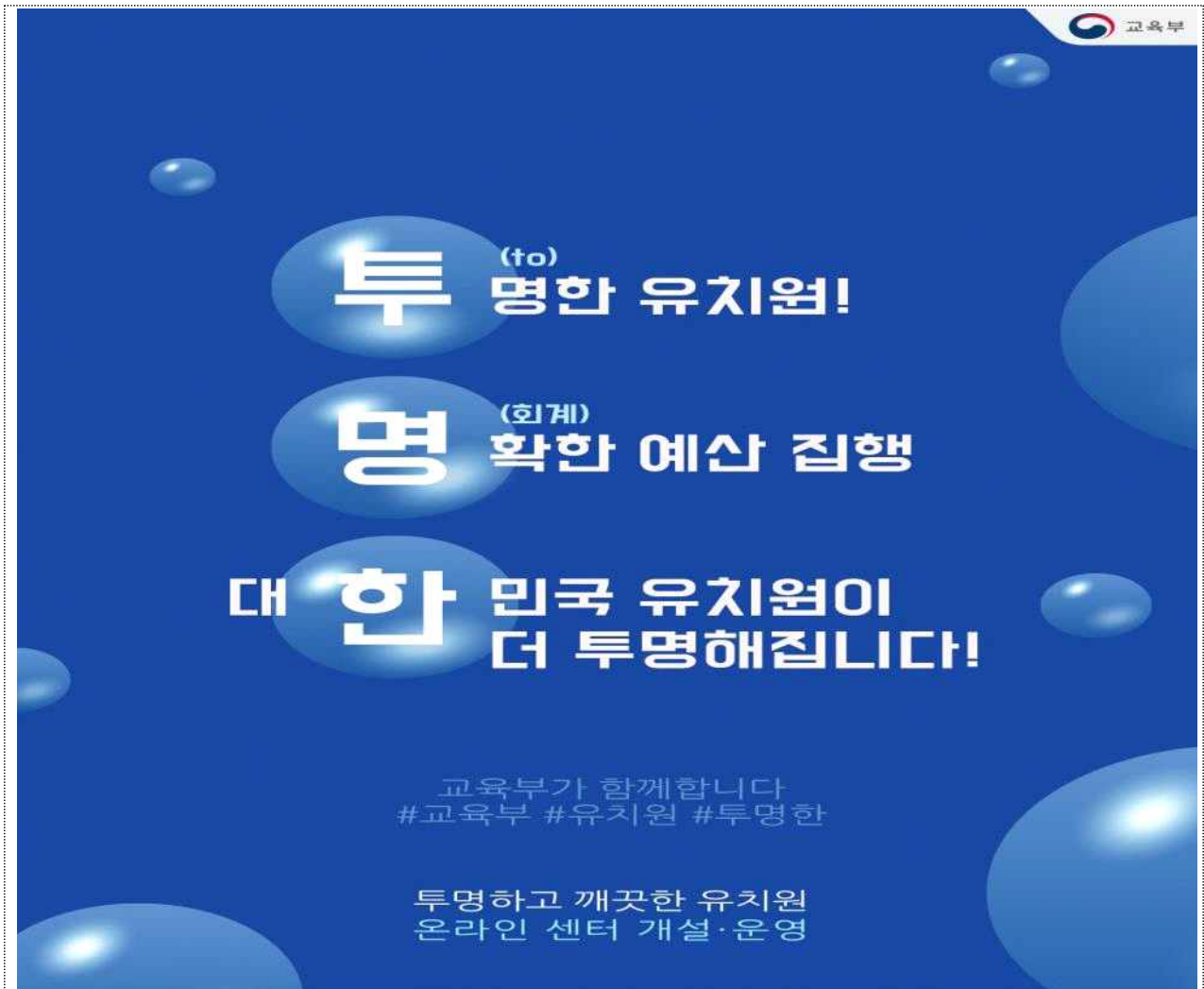
- 한편,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하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사립유치원에게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목)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 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당·정과 시도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 교육부 홈페이지

- (기간) 2018. 10. 19. ~ (계속)
- (방식) 홈페이지 팝업 존 및 배너 활용(<http://moe.go.kr>)
-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클릭 → 인증 → 신고 접수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으로 이송되고 교육부는 이송된 신고건의 관할청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검토합니다.

□ 콜센터

- (방식) 교육부 민원 콜 센터 전화(02-6222-6060)
- 유치원 비리 신고 - 신고 내용 취합, 해당부서 안내 - 필요 시, 관할청 통보, 감사 착수 등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4차산업 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채용 지원,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자소서 컨설팅 등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가 10월 18일(목)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 개요>

- 일 시: '18.10.18(목) 10:00~17:00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2 컨벤션홀)
- 규 모: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참여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B국민은행, 세종대
- 주 관: 서울지방중기청, 서울산업진흥원, WISET,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청년재단
- 개막행사 : '18.10.18(목) 10:30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 로비

- 이번박람회는 기술분야 우수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인재와 기업 간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올해 2년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 이번에 열리는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에는 올해 하반기 이공계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월드클래스 300, 청년친화 강소기업, 장영실상 수상,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개사가 참여하였다.
- 이번 2018년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미래가 유망한 4차산업 관련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였으며,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 (기업채용 면접) 행사에서는 연구, 설계 및 기술마케팅 등 여러분야 직무 채용계획을 가진 기술기업들이 채용면접을 진행하였다.

- 특히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직무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구인수요가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회사의 강점을 키워드로 만들어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4차 산업 분야 채용기업 예시>

기업명	분야	회사 강점 및 채용 키워드
넷마블	게임서비스	#전세계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 3위 #수평적 조직문화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케이엠더블유	5G 제조업	#5G #월드클래스300 #강소기업 #이동통신 #4차산업혁명 #매출3000억이상
(주)이노피아테크	임베디드 시스템	#두뇌역량우수 전문기업(Kbrain Power) #글로벌 강소기업 #매출액 500억 이상 #수출 전문기업 #해외법인 보유
우아한 형제들	SW 개발, 데이터 분석	#주35시간근무제 #월요일없는회사 (월요일오후1시출근) #디자인대상받은사무공간 #배달의민족 #배달앱1위기업 #최고의복지능력과인격적인동료들
(주)하나마이크론	반도체, IoT	#반도체기술 #IoT선도기업 #월드클래스300 #노사문화대상 #Global
라운피플	AI 기반 검사 솔루션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500만불 수출탑 #임직원 복지 우수 #세계최초 인공지능 Display 검사 솔루션 개발
네오위즈	게임서비스	#게임회사 #일도_게임처럼 #워라밸굿 #복지만렙 #일하기_좋은회사 #수평적인_조직문화 #너도나도_님호칭
주식회사 다음소프트	빅데이터	#2018 ICT 이노베이션 대상 #2018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선도기업
(주)에프에이솔루션	금융 IT솔루션	#소프트웨어개발 전문기업 #인공지능 #모바일 #이노비즈기업
(주)인라이플	광고플랫폼	#국내최초 리타겟팅 광고플랫폼 #광고플랫폼 업계 1위 #워라밸 #복지우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주)미래엔씨티	IoT 기반 주차솔루션 제공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주차 관리시스템 특허등록 #매출액 20억 이상 #복지우수
(주)카카오브레인	AI 연구	#자율연구 #몰입환경 #최고의동료

□ (취업지원) 행사에서는 각 기업의 채용관 외에도 구직자에게 적합한 기업·직무 추천 및 이력서 자문, 여성취업 상담, 예비 기술전문가를 위한 기술분야 자격증 상담 등 맞춤형 상담·자문이 제공되었다.

- 현직 담당자의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필요 역량, 업무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1:1 멘토링”과, 구직자에게 기업 인사담당자의 시각에

서 취업성공전략을 알려주는 대기업 “채용설명회”**가 있었으며,

*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샘표식품, 이랜드그룹, 한솔케미칼 ** 두산그룹, 넷마블, JW중외제약

- 17년 여성 엔지니어상을 수상한 이공계 선배*를 초청하여 취업 경험담과 연구개발 노하우 전수 등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이공계선배의 직무강연”도 높은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 (주)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혜순(‘17년 여성 엔지니어상)

-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분석해주는 AI 컨설팅과 이력서 첨삭 지도, 면접 이미지 코치,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취업연계 서비스도 현장 제공되었다.

- (온라인 박람회) 과기정통부는 행사 종료후에도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http://rndjob.jobkorea.co.kr>)와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를 통해 참가기업과의 지속적인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박람회 참가기업들의 사후 채용연계 요구사항 파악→ 구직자 DB에서 적합한 인재 후보군 추출 → 직업상담사의 구직자 매칭컨설팅 → 구인 기업에 맞춤형 인재 추천

- 개막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본 행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가 많이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청년들이 우수한 역량을 취업성공으로 연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계획(안)
2. 행사 주요프로그램 안내
3.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포스터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 일시/장소 : '18. 10. 18(목) 10:00~17:00 /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 규 모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구직자 3,000명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참여자 2,000명 등 이공계 중심 대졸 미취업자
- 주 최 :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B국민은행, 세종대
- 주 관 : 서울지방중기청, 서울산업진흥원, WISSET,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청년재단

□ 행사 내용

- 온라인 채용박람회 (<http://rndjob.jobkorea.co.kr>, 9월~11월말)
 - (사전매칭) 기업 구인정보 제공 및 구직자 사전면접 신청·접수
 - (사후매칭) 구인정보, 인재추천, 컨설팅 등 지속적인 채용연계
-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10.18, 목)
 - (기업채용관) 1:1 현장면접 및 채용설명, 서류 접수 등
 - (인재맞춤 컨설팅) 직업상담사 취업컨설팅 및 참여기업과의 현장매칭
 - (1:1 멘토링) 현장실무자와의 경력개발, 직무, 회사생활 등 1:1 상담
 - (기관홍보관) 인력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홍보 등

□ 개최방향

- (개방형 박람회) 기술혁신형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대졸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채용박람회 ※ 기술기업 취업희망 인문계생 가능
- (사전·사후 취업연계 강화) 온라인 채용박람회 운영(9월~12월), 사
전 기업정보 분석 및 매칭, 이력서 컨설팅 등 진행
- (맞춤형 취업지원) AI 직무컨설팅, 이공계 선배와의 대화, 1:1 멘토링 등

참 고 2

행사 주요 프로그램 안내

<행사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프로그램	비고
채용관	○ 1:1 현장면접, 기업 채용정보 안내, 서류 접수 등	100개 기업 참가
R&D JOB 콘서트관	○ 기업 채용설명회, 멘토 직무강연 (취업 및 연구개발 노하우)	
맞춤형 1:1멘토링관	○ 현직 선배와의 1:1 직무멘토링	사전 신청자 우선 진행
인재맞춤 컨설팅관	○ AI 자기소개서 컨설팅(AI 기술을 통한 자기소개서 분석) ○ 이력서컨설팅(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 컨설팅)	
부대행사관	○ 이력서 사진촬영(현장면접 및 입사지원용 증명사진) ○ 취업다짐 캘리그래피(취업성공 문구 등 캘리그래피) ○ 면접이미지 코칭(헤어·메이크업 연출 코칭)	
홍보관	○ (과기정통부, 산기협)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및 이공계 전문 취업사이트 '알앤디잡' 안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인력 채용 계획 설명 ○ (국민은행) KB소호창업컨설팅관 운영 ○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 홍보 및 상담 지원 ○ (광진구청) 광진구 관내 지역청년 상담지원 ○ (서울지방중기청)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소개 ○ (WISSET)이공계 여성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 ○ (청년재단)청년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안내 및 취업 상담	4개 주최기관 3개 주관기관 참가
취업지원관	○ 직업심리검사 ○ 기술분야 자격증 상담 및 국제인증 자격증 등 할인권 제공 ○ IT 무료교육 & 외국어말하기평가 OPIc 등 응시권 제공	

<부대행사 세부일정>

구분	시 간		참 여 기 업	장 소
채용·직무 설명회	10:30~11:00	30'	○ 두산그룹	R&D JOB 콘서트관
	11:00~11:30	30'	○ 넷마블	
	11:30~12:00	30'	○ JW중외제약	
직무 강연	13:30~14:00	30'	○ 삼성전자	맞춤형 1:1 멘토링관
	14:15~14:35	30'	○ 넷마블	
맞춤형 1:1 멘토링	13:00~15:00	120'	○ 금호석유화학(합성고무/합성수지)	
			○ 넷마블(채용 및 교육)	
			○ 샘표식품(연구기획)	
			○ 이랜드그룹(기획/마케팅/영업관리)	
			○ 한솔케미칼(연구기획)	



The poster is for the 2018 Youth Science and Technology Job Fair. It features a large, stylized robot character on the right side, composed of various geometric shapes and icons like a clock, a battery, and a microchip.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with white and yellow text and graphics. At the top left is the logo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at the top right is the RND JOB logo. The main title is '2018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2018 Youth Science and Technology Job Fair). Below the title is the tagline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를 위한 채용의 장!' (A place for recruitm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in Korea!). The event details are: '대상' (Target) - '우수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술혁신형 기업 청년 미취업자 누구나' (Excellent companies seeking talent, all unemployed youth); '2018. 10. 18(목) 10:00~17:00' (October 18, 2018, Thursday, 10:00~17:00);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광개토관 B2층)' (Sejong University Convention Hall, Gwanggaeto Hall B2F). The bottom left lists the organizers (주최), sponsors (주관), and contact information (문의).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B국민은행, 세종대학교

주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sba, WISET,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무역협회, INN BIZ, 청년취업지원단

문의 <http://mdjob.jobkorea.co.kr>, 032-870-0277, mdjob@jobkorea.co.kr

비무장지대 문화예술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 10. 27.~28. 문체부와 경기도, 비무장지대 탈바꿈 평화한마당' 공동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와 함께 10월 27일(토)과 28일(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지역에서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평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문화예술과 평화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기획됐으며, '비무장지대 탈바꿈 콘서트'를 비롯해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의 기획 사진전,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공동 예술창작활동(아티스트 워크숍), 거리예술공연 등이 동시에 펼쳐진다.

<10. 27.~28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구분	시간	장소	비고(주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기획전시	개막식: 10. 27.(토) 15:00~16:00 (전시 기간: ~'19년 4월)	기획전시관, 스튜디오 BEQ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콘서트	10. 27.(토) 16:00~19:00	볼링장 주차장 야외무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비무장지대(DMZ) 어울림 콘서트	10. 28.(일) 15:00~17:00	주차장 야외무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10. 27.(토)~28.(일) (행사기간 내 계속)	주차장(태양의 후예 천막 2동 + 간이 텐트)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아티스트 워크숍	10. 27.(토) 저녁 / 10. 28.(일) 오전, 오후총 4회	체육관 중강당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거리예술공연	10. 27.(토)~28.(일) (행사기간 내 계속)	주차장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10. 27.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콘서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콘서트'는 10월 27일(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비무장지대의 영상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비무장지대(DMZ) 사운드스케이프'* 무대를 시작으로, 남북한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서정적인 분위기의 개막공연, 남북한 탈춤 공연 등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 비무장지대의 풍경과 소리를 주제로 한 동명 다큐멘터리와 음반

▲ 양주별산대 놀이(서울, 경기)와 강령탈춤(황해도)이 함께 광장에서 어우러지며 관객들을 맞이하는 '탈춤연희'와 ▲ 전통과 현대, 재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통일기획 공연 '모자이크 코리아', ▲ 한국 최고의 '크로스오버 퓨전밴드'와 전통 판소리가 만나는 신명나는 무대 '두번째달 위드(with) 소리꾼 이봉근', ▲ 미국, 독일 3개 도시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각국 연주자들의 공연을 실황으로 볼 수 있는 '텔레마틱 콘서트'도 이어진다.

10. 28. '비무장지대(DMZ) 어울림 콘서트'

10월 28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어울림 콘서트'가 열린다.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33명이 출연하는 '우리동네 음악대장', ▲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춤 '레이디바운스', ▲ 미8군 군악대 록밴드 '드래곤 사운드'의 신나는 공연, ▲ 북한 예술공연단 '우리하나예술협동조합'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북한 예술공연단은 흥겹고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북한 만수대 예술단이 공연했던 무용 공연 등을 재현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획 사진전 등 비무장지대 평화정거장 전시 개최

'비무장지대(DMZ) 평화정거장 전시'도 열린다. 비무장지대를 수호하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는 정전 65주년을 기념한 '비무장지대(DMZ) 사진전'을 개최해 비무장지대 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정거장

전시'의 일환으로 예술창작 전시와 캠프그리브스 아카이브 전시도 볼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개요>

- (명칭)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결성일) 1953년 7월 27일
- (목적)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정전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수립된 단체로,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 감시
- (참가국) 중립국은 한국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선별되었으며, 유엔 사령부 측에선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국 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택했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측에만 스웨덴과 스위스 위원이 5명씩 주재 중

부대행사로는 ▲ 초청 작가와 관람객이 공동 예술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아티스트 워크숍'과 ▲ 나만의 평화기원 손거울 만들기, 평화 기원 나비/리본 달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군복 체험 등 '관람객 체험프로그램', ▲ 거리예술공연, ▲ '캠프그리브스 전시 투어', ▲ '비무장지대 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2018 한국관광공사 가을 여행주간 기념행사로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평화한마당'과 연계한 여행*이 진행되고 있다. 여행 참가자들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1박 2일 병영식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다.

* 티켓몬스터에서 파주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평화 한마당' 여행상품 판매 중

최근 문체부는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 지자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9. 20.)하는 등 비무장지대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평화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이번 공연은 남북한의 예술이 만나고, 독일과 미국까지 연결해 펼쳐지는 '만남과 연결'의 장이다. 오랜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는 남북을 갈라놓는 '이별과 단절'의 상징이었지만, 다가올 평화의 시대에는 이번 콘서트에서 주는 메시지와 같이 '만남과 연결'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
10.27(토)
16:00-19:00
DMZ탈바꿈콘서트

개막행사
DMZ사운드스케이프 등
모자이크코리아
두번째날
with 소리꾼 이봉근
텔레미틱콘서트
한국, 미국, 독일 원격공연

10.28(일)
15:00-17:00
DMZ어울림콘서트

북한예술공연
우리하나예술협동조합
미8군 군악대
10인조 락밴드 공연
스트릿댄스
레이디버모스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공연

DMZ 평화정거장 전시
예술창작전시
캠프그리브스 아카이브전시
NNSC 특별전

부대행사
관람객 체험프로그램
아티스트 워크숍
캠프그리브스 전시투어
거리예술공연
DMZ투어

DMZ탈바꿈 평화한마당

DMZ캠프그리브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031-953-6970 www.dmzcamp131.or.k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공사

마음이 넉넉해지는 체험 여행 ‘11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주 요 내 용 》

◆ 11월 추천 여행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지역	여행지	위치	체험	주변 관광지
경기권	교동장독대마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8-11	오감민족 삼시세끼, 우리쌀클레이, 농산물 푸드타이피, 전통고추장체험, 쿠키 클레이 만들기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폭포, 산정 호수 등
강원권	사재산마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상안 8길 9-14	가마솥 밥짓기, 국궁, 카트 마을 투어, 안흥찐빵 만들기, 떡메치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태기산풍력단지, 천태산자연휴양림, 섬강둘레길 등
충청권	알토란사과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길 81	사과설기떡 만들기, 사과잼만들기, 사과비누 만들기, 사과파이 만들기, 사과따기 등	덕산스파캐슬, 수덕사 가야산 덕산 도립공원, 예당저수지, 추사고택, 예산황새 공원
전라권	원색장마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쐼는길 330	자전거 마을 투어, 열무김치 만들기, 쿠키 만들기, 다육이 심기, 김장김치 담그기, 배 수확, 메주/된장/간장 담그기, 에코백 만들기 등	가야산, 전주한옥마을, 아중리 레일바이크, 아중호수, 전주교 성지 등
경상권	빗돌배기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05번길 51-17	단감 수확, 단감파이 만들기, 감말랭이 마들렌 만들기, 단감 비빔밥, 강통열차 마을투어, 가을 벼수확 4종 체험 등	주남저수지, 창원 해양공원, 창원과학 체험관, 마금산온천, 창동예술촌, 단감 테마파크 등

◆ 선정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 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에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을 선정·발표했다.

* 2016년부터 매월 계절·주제 등에 적합한 농촌여행코스 또는 농촌여행지를 선정, 발표해 오고 있음

○ 이번 농촌여행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 계절에 맞는 체험이 가능한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한 5개 마을들이다.

*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 단감으로 유명한 창원 빗돌배기마을에서는 감나무 밭에서 직접 감을 수확하고 단감파이와 감말랭이 마들렌을 만들어 보고, 깡통열차를 타고 마을길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 사과를 테마로 한 알토란사과마을에서는 사과설기떡과 썰을 만들고 사과밭이 보이는 숙소에서 바비큐를 먹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보낼 수 있다.

○ 황성 안흥면의 사재산마을에서는 안흥찐빵을 만들고 전통 국궁 체험을 할 수 있고, 포천 교동장독대마을에서는 내 손으로 수확한 농작물로 직접 밥을 해먹는 오감만족 삼시세끼, 우리 쌀 클레이 등 건강한 먹거리 체험이 가능하다.

○ 전주 원색장마을은 전주한옥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담한 마을로, 조용하게 식사와 숙박, 체험을 즐길 수 있어 한옥마을과 함께 방문하는 코스로 가면 더 좋은 곳이다. 마을 자전거를 빌려서 마을 내 벽화골목과 논밭을 따라 나있는 자전거 길을 달리며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❶ (경기권)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❷ (강원권) 횡성 사재산마을 ❸ (충청권) 예산
알토란사과마을 ❹ (전라권) 전주 원색장마을 ❺ (경상권) 창원 빗돌배기마을

○ 선정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농촌 및 농촌여행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매월 계절에 어울리는 우수 농촌여행지를 지속적으로 선정·제공할
계획이다.

참 고 1

계절 · 테마별 11월 농촌여행지 5선

1 [경기권] 포천 교동장독대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교동장독대마을 (대표 : 이수인)
○ 주 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8-11
○ 연락처 / 홈페이지	010-8983-7688(예약 및 문의) / http://www.교동장독대마을.com/

체험 현황(11월)

오감만족 삼시세끼, 우리쌀클레이, 농산물 푸드테라피, 전통고추장체험, 쿠키 클레이 만들기 등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다목적 시설	체험, 식당, 세미나 겸용 시설 1개소	80명	
	숙박시설	12평형 펜션 7동, 10평형 1동	80명	
	카페 겸 상품판매장	40평 1개소(매주 월요일 제외 상시 운영)	50명	
	기타시설	누에 체험장 1개소	150명	
인근 관광지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폭포, 산정호수 등		

사진자료



우리쌀 클레이



농산물 수확



오감만족 삼시세끼



오감만족 삼시세끼

2 [강원권] 횡성 사재산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사재산마을(대표 : 김희철)
○ 주 소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상안 8길 9-14
○ 연락처 / 홈페이지	010-6369-2909(예약 및 문의) / http://cafe.daum.net/4jms

체험 현황(11월)

가마솥 밥 짓기, 국궁, 카트타고 마을 돌기, 안흥 찰빵 만들기, 페인트총 서바이벌, 떡메치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강의실 및 다용도 체험장	100명 이상	
	식당시설	서초수련원 식당 이용	100명	
	숙박시설	서초수련원 숙소 이용	200명	
	체험장	맨손송어장, 카트장, 국궁장 등		
	기타시설	운동장, 대형주차장, 바비큐장		
인근 관광지		태기산풍력단지, 천태산자연휴양림, 섬강둘레길 등		

사진자료



국궁



떡메치기 체험



가마솥 밥짓기



안흥찰빵 만들기 체험

3 [충청권] 예산 알토란사과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알토란사과마을(대표 : 김영주)
○ 주 소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길 81
○ 연락처	010-5118-7200(예약 및 문의)

체험 현황(11월)

사과설기떡 만들기, 사과잼 만들기, 사과비누 만들기, 사과파이 만들기, 사과따기 등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세미나실 겸 교육식당(1) 체험관(1)	70명	
	식당시설	세미나실 겸 교육식당(1)	50명	
	숙박시설	2동 (사과방, 배방)	40명	
	기타시설	야외 바비큐 시설, 마을 잔디밭, 주차장		
인근 관광지		덕산스파캐슬, 덕산온천, 수덕사, 가야산, 수암산, 덕산도립공원, 예당저수지(예당호 조각공원, 카페, 캠핑장 등) 봉수산자연휴양림, 충의사, 추사고택, 예산황새공원		

사진자료



사과파이



사과설기떡



사과따기



마을길 옆 사과밭

4 [전라권] 전주 원색장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전주시 원색장마을(위원장 : 박영순)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330(색장동)
○ 연락처 / 홈페이지	063-284-3232(예약 및 문의) / http://wsvill.com/

체험 현황(11월)

자전거 타기, 열무김치 만들기, 쿠키 만들기, 다육이 심기, 김장김치 담그기, 배 수확, 메주/된장/간장 담그기, 에코백 만들기 등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실내 체험실(1), 세미나실(1)	40명	
	식당시설	자체 조리시설 구비	60명	
	숙박시설	6실	30명	
	기타시설	북카페		
인근 관광지		각시바위, 전주한옥마을, 아중리 레일바이크, 아중호수, 천주교성지 등		

사진자료



자전거 타기



쿠키 만들기



벽화 골목



열무김치 만들기

5 [경상권] 창원 빗돌배기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	빗돌배기마을(대표 : 강창국)
○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505번길 51-17
○ 연락처 / 홈페이지	010-2006-4822, 055-291-4829(예약 및 문의) / www.sweetvillage.co.kr

체험 현황(11월)

단감 수확, 단감파이 만들기, 감말랭이 마들렌 만들기, 단감 비빔밥, 강통열차 마을 투어, 공기정화식물 곶 토피어리 만들기, 가을 벼수확 4종 체험(추수, 탈곡, 도정, 빵튀기 먹기 등)

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최대수용인원	비고
시설 현황	체험시설	내부체험장/외부체험장	30명/100명	
	식당시설	식당 1개소		
	숙박시설	다감농원민박, 체험관 숙소 등		
	상품판매장	1개소		
	기타시설	교육장	40명	
인근 관광지		주남저수지, 창원해양공원, 창원과학체험관, 마금산 온천, 창동예술촌, 단감테마파크 등		

사진자료



단감 수확



가을 벼수확 4종 체험



단감 비빔밥



강통열차 마을투어

제주 · 순천 · 창녕 · 인제,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

- 두바이에서 10월 25일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총회에서
제주, 순천, 창녕, 인제 등 4곳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25일 오후(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10월 21일~29일) 중에 제주시, 순천시, 창녕군, 인제군 등 우리나라 4곳을 포함하여 전 세계 7개국 18곳이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 람사르습지 도시 7개국: 대한민국(4), 중국(6), 프랑스(4), 헝가리(1), 마다카스카르(1), 스리랑카(1), 튀니지(1)

- '람사르습지 도시'란 우리나라가 2011년 처음으로 제안하고 튀니지와 공동 발의한 제도로,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렸던 제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됐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 또는 마을을 3년마다 열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 이번에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은 제주시, 순천시, 창녕군, 인제군 등의 지자체 시장·군수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여 인증서를 받는다.

- 이들 지자체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힘을 모았다.

- 제주시는 람사르습지 도시 추진을 계기로 제주도습지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전조례를 제정했다. 동백동산 습지 등 지역

주민들은 동백동산습지센터의 운영과 역량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순천시는 순천만·동천하구 습지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완충지역(생태보전지구)을 지정하는 등 습지보전이 도시 관리의 주요 목표가 되도록 지역 주민과 협의했다.

- 창녕군은 우포늪 지역 주민과 함께 창녕교육지원청,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따오기 복귀를 위한 논습지 조성, 생태관찰(모니터링) 이행 등 지역 공동체와 유관기관들이 습지 및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협력구조를 만들었다.

- 인제군은 이 지역 대암산 용늪에 사는 주민들이 가는오이풀 등 습지식물을 증식·재배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용늪 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활용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습지복원 및 관리 참여체계를 구축했다.

-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이들 지자체 4곳은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상징(브랜드)을 6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재인증 여부에 따라 그 권한이 연장된다.

- '람사르'는 국제사회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로 지역친환경농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하여 국내외 홍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는다.

-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람사르습지

도시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만들고, 인증 이후 람사르습지 도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에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전 세계 18곳의 시장·군수 협의회를 국제사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검토 기구인 독립자문위원회의 의장직을 튀니지와 공동으로 맡아 국제사회에서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계기로 행정주도로 진행되었던 습지 보호지역 관리가 지역 공동체의 참여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제 개요.
2. 람사르습지 도시 추진경과.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10월 25일 오후 8시 이후 예정)

□ 람사르습지도시(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 인증 받은 도시(람사르협약에서 인증)

※ 제48차 상임위('15.1)에서 한국·튀니지 공동 발의하여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15.6.9, 우루과이)에서 결의문으로 채택

◆ (참고) 람사르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약칭)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Wetlands),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97년 7월 발효).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순천만 등 22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람사르협약에서 정한 6개 인증기준)

- ①람사르습지와 연계성(위치), ②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③ 습지 복원·관리방안, ④습지 통합적 보전계획(토지·공간이용), ⑤ 습지 혜택·서비스 교육·홍보(습지교육센터 등 설치·운영), ⑥습지도시 관리, 인식증진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절차(람사르협약에서 정한 시간계획)

- 당사국 인증신청서 제출('17.10)→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검토·결정('17.12)→상임위 보고('18.2)→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인증서 교부('18.10, UAE, 6년간 인증)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도입) 기대효과

- (대외) 제도 제안국으로서 국제 협약 선도적 이행, 국제사회 위상 강화
※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협약 당사국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대내) 인증서·현판 수여, 람사르로고(브랜드) 독점 사용으로 친환경적 지역이미지 향상(지역상품 경쟁력 향상, 인증사업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 등)

□ 그간의 추진경위

- ('10~) 습지보호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 ('11.9) 람사르마을제도 도입 제안(환경부→람사르사무국)
- ('13.5) 환경부장관·람사르사무총장 습지도시 도입 추진 공동 선언, 람사르마을 시범사업지역 지정(우포, 동백동산습지)
- ('14.2) 람사르습지도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환경부·람사르 사무국 공동워크숍 시행
- ('14.11) 람사르습지도시인증제 홍보 및 사전토의(아시아지역회의)
- ('15.01) 람사르습지도시인증제 발의(대한민국, 튀니지 공동)
- ('15.06)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 채택(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 ※ 한국·튀니지 공동 발의('15.1, 제48차 상임위원회)
- ('15.11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 내륙습지 5곳*, 연안습지 3곳**에서 신청
 - * (환경부 소관 내륙습지) 창녕군 우포늪, 제주시 동백동산습지,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고창군 운곡습지, 인제군 대암산 용늪
 - ** (해수부 소관 연안습지) 순천만 갯벌, 서천 갯벌, 고창 갯벌('17.6월 선정)
- ('15.12~'17.6) 시범·연구사업, 전문가 컨설팅(자문) 등 실시
 - 협약 인증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 ('17.7~'17.10) 선정평가 및 최종후보지 4곳* 선정, 인증 신청
 - * 내륙습지 3곳은 환경부에서 선정(제주 동백동산·인제 대암산용늪·창녕군 우포늪), 연안습지 1곳은 해수부에서 선정(순천만 갯벌)
- ('17.12) 독립자문위원회 신청서 검토, 인증 여부 관련 의견 제출
- ('18.10)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 수여(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 사업주가 보호조치 불이행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13.4월),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15.1월) 등 소위 “甲”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이하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10.18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며
 -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

-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 1차: 300만 원 → 2차: 600만 원 → 3차: 1,000만 원

- ☐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위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com)

-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히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참고 1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보호조치 주요내용

□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조치(시행규칙 개정안)

①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행할 시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백화점, 마트 등 고객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 문구 게시
콜센터 등 고객과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 음성 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지침 마련

-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고객응대 업무 지침 마련

*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에 고객응대 업무 지침 예시를 수록

③ 지침 내용 및 정신건강장애 예방 교육

④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맞는 사업주의 자율적·선택적 조치를 폭넓게 유도하기 위하여 위 3가지 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규정

□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발생 시 보호조치(시행령 개정안)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예방

② 휴게시간의 연장

- 피해 근로자가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③ 치료 및 상담 지원

- 신체적·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치료 및 상담 필요

*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용 보전 가능

④ 피해근로자 지원

- 관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 제출, 근로자 등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시 시간 할애 등 필요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장해 발생 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2조제4항)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이익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벌칙: 제72조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보호관찰 청소년’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

-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 ‘보호관찰 청소년’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일시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호관찰 및 선도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교화) 업무 기관(법무부소관, 보호관찰소 17개소, 지소 40개)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 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 신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제4항 제10호)

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 시설의 설치기준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 3)

※ (現) 숙박형 생활시설 → (추가) 비숙박형 이용시설(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

□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 지원 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

□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개정 시행령은 공포(국무회의 의결 후 7~10일) 후 즉시 시행된다.

【붙임】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끝.

□ 추진개요

-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동법 시행령 제4조

□ 추진경과

- '0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5개 지역 시범 운영
- '12. 8.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서비스 추진 체계

- 접수(연계) 및 발견 → 상담, 심리검사, 위기스크리닝 → 사례판정, 지원계획 수립 → 상담치료 등 통합서비스제공 → 분석·평가



□ 서비스별 제공 및 연계 지원 현황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내역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 촉진
2.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등

□ 시도별 구축 현황

(2018년 10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CYS-Net 구축 현황						
	현 지자체 수 (243개소)		CYS-Net 운영 대상 지자체 수 (248개소)		CYS-Net 운영 센터 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비고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계	17	226	16	232	226	228	

□ 추진개요

- '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설치 근거 마련, '18년 최초 국비 확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2호(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403백만원 (국고보조율 50%)

□ 운영(안) 개요

- 사업개요

- (대상) 시설 퇴소, 주거취약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 청소년
- (운영방식)
 - 숙박형 생활시설 :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
 - 비숙박형 이용시설 :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 독립생활기술 훈련 과정 운영 및 독립생활 지원

* 소비지출 등 경제 생활관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및 연계 등

* 자립과 관련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제출 및 심사, 지원, 연계 제공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현황(총 4개소)

운영모형	단체명	비고
숙박형 생활시설	(인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남자)	
	(인천)성산사랑의집(여자)	
비숙박형 이용시설	(서울)인터넷꿈희망터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 24일 주거복지협의체 개최...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절차 쉬워진다 -

□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10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 주거복지협의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 “주거복지로드맵(’17.11.29)”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발굴 등을 목표로 운영 중(1차 ’18.1월, 2차 ’18.5월 既개최)

○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16년 기준 37만 가구(통계청)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거처의 유형, 가구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17.5~’18.6)로서 6,809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동대문구의 25만 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비 등 신청 절차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저렴한 보증금 50만원에 기존 월세수준보다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은 보다 나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면 개편)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를 저렴한 보증금(50만 원)으로 우선입주 가능토록 운영

** 비영리단체,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대상 발굴부터 지원신청 및 서류작성, 주택물색 등의 절차 전반을 밀착지원하는 사업

② 주거지원 장벽 완화 :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대구에 살고 있는 76세 주거급여 수급자 E씨는 2인가구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이며 주거급여 지원액을 초과하는 월세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500만원의 목돈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였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보증금 부담이 없고 주거급여로 충당되는 월세를 내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 필요할 때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고시원에 거주중인 20대 여성 A씨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입주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생업으로 바쁘다보니 모집 시기를 놓치게 되고, 다음 모집 시기까지 3개월여를 또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입·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 (공공임대 상시지원)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신속한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④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바꿉니다 〉

노후된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의 허름한 고시원에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매우 비좁은 면적에 옆방의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하지만 역과 가까운 곳에 이만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참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옆 동네에 기존 노후화된 고시원을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재건축한 매입임대주택이 건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예정이다.

-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⑤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8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동양육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었으나 퇴소 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막막함, 주변의 시선 등으로 결국 고시원과 여관방을 전전하게 되었다. 30만원에 달하는 고시원비도 큰 부담이지만 기술도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임시직을 전전하며 구직활동을 하다보니 장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막막한 심정이었다.

앞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동시에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받다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19.하~, 240호 시범사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굴바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 해수부, 올해 12월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력표시물량(톤) : ('14) 4,714 → ('15) 5,932 → ('16) 9,196 → ('17) 8,108

** 참여업체(개소) : ('14) 3,299 → ('15) 4,286 → ('16) 7,066 → ('17) 6,917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16~'17)을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해수부, 업계(수산물중도매인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학계(부경대), 유관기관(KMI,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하여 효과를 살펴 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총 134개 등록업체(전체 수산물이력제 도입 품목 중 넙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등록업체를 보유)

** 양식장·박신장(굴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장) → 수협(수협중도매인) → 가공공장 → 대형마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 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 나가 고자 한다.

* 축산분야도 의무화 시범사업을 통해(소는 4년, 돼지는 3년) 준비기간 부여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 영광, 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구분	세부 내용
근거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입취지	수산물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도입시기	'08.8월 도입
참여품목	모든 수산물 참여가능(자율)
등록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력번호 구성	업체(등록)번호(4) 제품유형(2) 년도(2) 일련번호(5) × × × × - × × - × × - × × × × ×
표시방법 (로트 단위)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함 ·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

	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음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 할 수 있음
추진체계	역추적(tracing backward) 유통단계(도소매, 배송) 이력추적(tracing forward) 생산 단계 •생산 이력 •누가, 어디서? •치어? •사료? 가공 단계 •가공 이력 •원재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 단계 •유통[도매, 배송]이력 •누가? •어떤수단? •저장? •운송? 판매 단계 •유통[판매]이력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생산이력 추적제도 + 가공이력 추적제도 + 유통이력 추적제도 = 수산물 이력제도